

다가오는 '청문 정국'... 달아오르는 국회

이달말 조국·최기영 등 7개 부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與, 속전속결 방침...野, 조국 법무 임명 반대 파상 공세

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부처적 인사라며 강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최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

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게 완성,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청문 정국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

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현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점

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 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인문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며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 후보자의 흠결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상,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 시민사회 목소리 대변 '진보의 아이콘'

조국은 누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해광고를 졸업했다. 만 16세의 나이에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만 26세엔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때문에 국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중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조 후보자의 고교·대학교 후배로, 대학 시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지켜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와 정부 인권 관련 기관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TV선조연설을 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며, 2015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엔 '김상근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성찰하는 진보' '진보집권플랜'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출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2019 정책페스티벌 출범식'에서 박광온 정책대외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철승, 김병욱, 김민기, 김두관 의원, 박광온 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경협, 임종석 의원. /연합뉴스

의원 겸직 장관 4명...女비율 22% 그대로

TK 출신 2명 증가... 평균나이 60.7세→60.3세

8·9 개각 이후 내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단행한 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 3명이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이다. 교체 명단에 오른 4명의 장관 중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의원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전부 비정치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번 개각 발표대로 내각이 꾸려진다면 현역 의원을 겸하는 장관의 수는 기존 6명에서 4명(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국무위원(18명)에서 의원 겸직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3.3%에서 22.2%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성 장관의 비율은 22.2%(18명 중 4명)로 개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

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의 여성 장관 중 3명은 유임됐고, 진선미 장관의 자리에 같은 여성인 이영욱 후보자가 지명됐다. 다만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여성 장관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장관급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았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여성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낙점됐지만, 국가보훈처장이 여성(피우진 현 처장)에서 남성(박삼욱 처장 내정자)으로 바뀌면서 여성 비율은 변동이 없다.

8·9 개각으로 새롭게 꾸려질 내각의 평균 나이는 60.3세다. 지난 3·8 개각 이후 구성된 내각의 평균 나이는 60.7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후보자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최연소 장관은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될 전망이다. 최연장자는 진영(69)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출신 지역은 수도권이 4명, 영남 7명, 호남 4명, 강원 2명, 대전 1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연합뉴스

전문가·관료 포진... 검찰 개혁·국정 운영 전념 의지

8·9 개각 포인트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한 '8·9 개각'의 키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이다. 집권 중반 검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들도 대부분 교체됐다. 앞으로 정부는 총선 스케줄과 관계없이 국정운영

에만 전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교체 대상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관료 그룹으로 채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출마 예상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분간 장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표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12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법무장관 교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조 후보자에 쏠려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국-윤석열-김조원'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삼각관계가 완성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들 세 명이 검찰개혁, 부정부패 및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으로 '번입'을 하며 개혁 작업에 가속페

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법무장관 기용으로 일각에선 '조국 대망론'이 흘러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눈앞에 놓인 과제로 보인다.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전격 내정된 것 역시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지난 1975년 의무고시 합격후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많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국내로 복귀하는 조준제 주미대사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조 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귀국 후에도 정권에서 중책을 계속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대지 393㎡ 2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7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라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 8232㎡ 그린벨트 임 9억4800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1억8천
- 서구 쌍촌동 소방도 접 118㎡ 나대지임 투자에도 양호 1억6천2백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충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신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두암동 버스도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계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림길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향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적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임대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13억
- 영암군 학산면 영신강점 산 97404㎡ 건평 8억4천천 하차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